



[산업]  
삼성 vs LG  
프리미엄 TV 속  
'갤러리 콘텐츠' 전쟁  
05

[부동산]  
안양시 집값  
한달만에 1억↑  
연일 상한가



## "경기 최악이지만 함께하는 이웃 있어 든든" 상인들의 정겨운 목소리… 강릉 활기찬 새벽 깨운다



새벽을 여는 사람들

동해의 일출은 강릉을 깨우지 못한다. 중앙 시장 상인들이 새벽을 열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솔향 가득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도착한 이곳은, 삶에 대한 자부심과 이웃의 정이 빛어진 거대한 송편이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도 쉬지 않고 새벽을 연 상인들을 만나봤다.

### ◆ "최악이야. 그래도 장사해야지"

자전거를 타고 돌아본 오전 5시 시장 풍경은 한산했다. 빈 수레, 채운 수레 한두 개가 골목을 지나며 잠시 멈춘 시장의 혈류를 채우기 시작했다. 사람 냄새를 따라 들어가보니, 한 상인이 어스름 끝에 닿은 하루의 시작을 응시하고 있었다.

중앙전통 도매시장 주인 김태열(57) 씨는 이날 오전 4시 반에 가게 문을 열었다. 연휴지만 업(業)이니까 나왔다고 한다. 김씨는 새벽 공기를 한숨으로 뒤바꿔 내쉬며 동전 바구니를 바라보았다. "최악이야 최악. 작년에는 좀 나았는데 올해는 최악이야, 장사가."

추석 이틀 전 손님이 가장 많았지만, 올해 매출은 반토막이 났다. 최저 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어르신 직원 셋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다. "손님요? 없지, 연휴인데. 그런데 우리가 야채를 대주며 식당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김씨는 갈증이 난 듯 담배를 찾았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성과는 높이 평가하지만, 시장 살리기에도 힘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 옆에만 협력 하나로 마트가 몇 개인 줄 알아요? 세 곳이에요. 텔레비전에 나온 전문가들, 정치인들이 이 대형 마트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로 마트라니까."

### ◆ 새벽 청소, 사랑의 힘으로

경쟁자를 향한 상인의 울분을 뒤로 하고 지하 1층 어시장에 내려갔다. 형광등 아래로 해산물 냄새만 흐르는가 싶더니, 정적을 깨는 설거지 소리가 들려온다. 윤진네 대개집 간판 아래 쪼그려 앉은 안종배(60) 씨는 이날 새벽 4시 40분에 나와 아내의 개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안씨가 생선 조리 도구를 씻은 뒤 물건을 받아 놓으면, 6시에 아내가 장사를 시작한다. 다리 건너 산다는 옆 가게 부부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 집도 형수님이 장사해요. 아까도 형님이 청소해 놓았는걸요." 친형제는 아니지만, 매일 오전 4시 40분에 나와 청소하면서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가 됐다.

종업원 없는 이곳은 김씨 같은 인건비 부담이 없지만, 불경기 직격탄은 바다에도 떨어졌다는 하소연이 나왔다. 하지만 자식들이 결혼하고 손주도 있는 지금, 안씨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나날이 행복하다.

"벽지 파는 지업사와 주유소 운영도 했지요. 이제는 이렇게 아내의 장사를 준비하고, 이후에는 내 생활을 하는 식이죠. 그래도 어제는 장사가 잘 돼 많이 팔았답니다. 자세한 건 아내가 알지만(웃음)."

### ◆ 남은 건 자식키운 보람과 시장 이웃들



오전 6시가 되자 동이 트며 새벽 손님들이장을 보기 시작했다.



자하 1층 해산물 가게에서 안종배 씨가 아내의 개점을 돋기 위해 청소를 하고 있다. 흥어무침 가게를 하는 이명자 씨가 개점 준비를 위해 안쪽 자리로 항하고 있다.

### 50년 전 장사 시작해 자식 키워 가족같은 시장 이웃 만나기도 상인들과 하루 시작·끝 함께해

### 명절에도 매출 뚝… 장사 힘들어 정부서 시장 살리기 힘 써 줬으면



시장 앞에 나란히 앉아 밤과 채소를 팔던 김복동(사진 왼쪽), 김정자 씨는 이날 처음 동갑내기임을 알고 서로 짙다며 반가워했다.

트럭을 따라 지상에 오르려는 찰나, 앞서 김씨네 가게에서 인사했던 어르신이 아픈 허리에 손을 얹고 스티로폼 상자를 매만지고 있었다.

흥어무침 가게를 운영하는 이명자(77·여) 씨는 노후에 맞이한 '노 마진 시대'가 걱정스럽다. 1kg에 만원, 한 상자에 5kg 이니 5만원에 팔지만, 남는 돈이 없다고 한다. "가오리 한 짹에 3만5000원, 거기서 4만원으로 올랐는데, 장사가 안되니 값을 올릴 수가 있나. 야채값에 양념값도 올라서 더 받아야하는데, 올해는 팔아봐야 마진이 없어. 이제는 장사가 안돼. 사는 게 힘들지…."

이씨는 49년 동안 중앙시장에서 장사를 해왔다. "스물 아홉에 고등어, 그 다음에 문어 장사 많이 했지. 흥어 무침은 30년."

한창 때는 문어 판 돈으로 자식 농사를 지었다. "30년 전에는 문어가 쌌거든. 하루에 쌀 한 가마니 베는 건 일도 아녔지. 그땐 진짜 잘 벌었어…."

예기치 못한 사건들로 재산을 잃었지만, 아들셋과 딸 하나 키워낸 두 손에는 반세기 풍파를 견뎌낸 자부심이 자글자글 배어있었다. 이씨는 이날도 "벽신벽신한" 시장 골목에서 친척보다 가까운 호떡 장수 아주머니들과 하루를 마치기로 했다.

### ◆ 함께 해야 잘 되는 장사

어느새 날이 밝았다. 오전 6시를 앞둔 시장 앞에는 바닥에 채소를 늘어놓은 이들이 짹지어 앉아 있었다. 박월동에서 온 김정자 씨는 직접 농사 지은 가지와 호박,

무와 고추를 깨끗이 다듬어 가지런히 쌓아 놓았다. 한 달에 한두 번 시장을 찾으니 고정된 자리는 필요가 없다. 추석 대목 일등 상품은 도라지와 전 부침 나물이었다.

바로 뒤에 주차된 트럭 운전자를 위해 힘겹게 일어났다 앉은 김복동 씨는 밤만 팔고 있었다. 그는 5000평 산에서 난 밤을 도매로 넘기고, 남은 물건을 8월 말부터 한 달 간 판다고 했다. 두툼한 밤 한 되에 7000 원. "하루에 20~30만원 파니까, 겨울 용돈으로 600~700만원 나온다니. 도매로 다 넘기고 이렇게 좋은 것만 남기거든."

자식들은 말리지만,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노후에 돈 버는 재미를 포기 못한다. 며느리와 손주 용돈도 밤에서 나왔다. "아들한테 왜 주나! 며느리, 손주 줬으면 됐지(웃음). 그래도 설날에 아들 세뱃돈은 줘."

이 시장 노점은 오전 9시 영업 종료가 원칙이다. 이때까지 밤이 다 팔리지 않으면, 김씨는 남편 차를 타고 강릉고속터미널에 서 장사를 이어간다.

자리를 뜨기 전 나이를 물으니 둘 다 72세 돼 돼지띠였다. 시장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나누던 둘은 자기 옆에 앉은 사람이 동갑임을 알게 되자 반가워 말을 놓기도 했다. "(김복동 씨가 김정자 씨에게) 짧잖아 (어려보이네)." "뭐이 짧어."

오늘 처음 본 사람끼리 짹 지어 앉은 이유를 묻자, 당연하다는 듯 구수한 웃음이 흘러나왔다. "옆에 이렇게 사람이 있어야 장사가 잘 돼."